

A 13

저 외부 자장에 있어서 비정질 $(\text{SmFe}_2)(1-X)\text{at.\% B}(X)\text{at.\%}$ 의 초자왜 현상

동북 대학, 금속재료 연구소, 김 재영*
(현재)* 삼성 종합기술원

Giant magnetostriiction of amorphous $(\text{SmFe}_2)(1-X)\text{at.\% B}(X)\text{at.\%}$ in a low external magnetic field

Institute for Materials Research, Tohoku University, Jai-Young Kim*
(Presence)*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1. 서론

Laves상 REFe₂ (RE = 희토류 금속) 금속간화합물은 실온에서 초자왜라고 불리워 지는 10^{-3} 정도의 포화자왜 정수를 나타내고 있다⁽¹⁾⁽²⁾. 그러나, 이 금속간화합물은 높은 결정자기이방성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포화자왜 정수를 얻기 위하여 25 kOe 정도의 외부 자장이 요구되어 진다⁽³⁾. 그러므로, 초자왜 현상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낮은 외부 자장에서 높은 자왜 정수를 얻은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기준의 방법으로는 결정자기이방성 정수의 부호가 서로 다른 REFe₂를 합금화하여 결정 상태에서 결정자기이방성 에너지를 감소시키어 주는 것이다⁽⁴⁾.

본 실험에서는 저자장에서 높은 자왜 정수를 얻기 위하여, REFe₂ 금속간화합물중 결정자기이방성 정수에 대한 자왜 정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SmFe₂를 선택하였다⁽²⁾. 이 SmFe₂의 결정자기이방성 에너지를 원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비정질화 하였으며, 국부적 이방성 에너지를 상쇄하기 위하여 비정질 형성능력을 증가시키어 주는 boron을 합금화하여 비정질화 하였다.

2. 실험방법

직경 15 mm, 두께 0.3 mm의 시편은 고속 삼극 DC sputtering 장치를 이용하여 Cu 기판위에 적층하여 제작하였다. 실험방법의 구체적 사항은 다른 발표에 기술하였다⁽⁵⁾.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은 열처리후의 $(\text{SmFe}_2)(1-X)\text{at.\% B}(X)\text{at.\%}$ 의 boron첨가에 의한 Curie 온도 (T_C) 및 결정화 온도 (T_X)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Boron양에 따른 T_C 의 변화는 $X=0.42$ 에서 10°C 증가한 후, 소량 감소한다. 이 T_C 의 증가는 첨가되어진 boron 원자가 Fe원자 사이에 침입형 형태로 작용하여 d궤도의 전자밀도를 증가시킴에 기인한다. 한편, T_X 의 경우 $X=0.43$ 일때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는 비정질 구조에 결정학적 변화를 의미한다.

Fig. 2는 열처리 전,후의 $(\text{SmFe}_2)(1-X)\text{at.\% B}(X)\text{at.\%}$ 의 boron첨가에 의한 보자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열처리전의 보자력의 변화는 $X=0.43$ 을 전,후로하여 불연속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열처리에 의한 내부응력의 감소에 따른 보자력의 감소양도 $X=0.43$ 을 전,후로 상이하다. 이는 비정질 구조의 내부응력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Fig. 3은 고 외부자장에서 boron양의 변화에 따른 자웨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Boron양의 증가에 따라 자웨 곡선은 연화되어지고, $X=0.43$ 의 곡선에서 포화 곡선을 나타낸다. $X=0.74$ 의 자웨 곡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의 자웨 곡선들은 단순 감소한다.

Fig. 4은 저 외부자장에서 boron양의 변화에 따른 자웨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X=0.74$ 의 자웨 곡선은 저 자장에서 세계 최대의 유효 자웨치를 나타내고 있다.

4. 결론

저 외부 자장에서 높은 자웨 정수를 얻기 위하여, Laves상 REFe₂ 금속간화합물중 결정자기이방성 정수에 대한 자웨 정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SmFe₂를 선택하고, 원리적 결정자기이방성 에너지 및 국부적 이방성 에너지를 상쇄하기 위하여 비정질화 및 boron의 합금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boron원자가 치환형태로 작용하였을 경우, 비정질 구조의 자기 탄성 에너지를 변화 시키어서 새로이

증가된 포화 자외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자외 재료중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저 자장에서의 세계 최대의 자외값을 얻었다.

5. 참고문헌

1. A. E. Clark and H. Belson, Phys. Rev. B5 (1972) 3642
2. A. E. Clark, Ferromagnetic Materials, Edited by E.P.Wohlfarth, Vol. 1, Chap. 7 (1980) 531
3. A. E. Clark, R. Abbundi and W. G. Gillmor, IEEE Trans. Mag., MAG-14 (1978) 542
4. A. E. Clark, R. Abbundi, O. McMaster and H. Savage, Physica 86 - 88B (1977) 73
5. Jai-Young Kim, "Giant magnetostriction of amorphous $(Sm_{1-x}Pr_x)Fe_2$ in a low external magnetic field" submitted to '94 Autumn, Korean magnetic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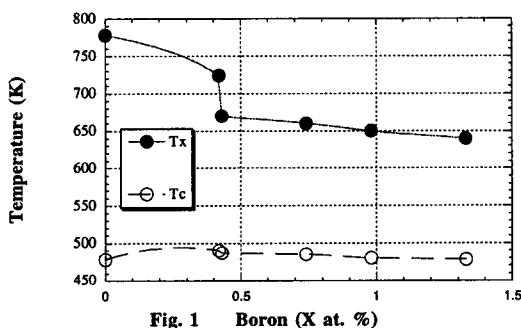


Fig. 1 Boron (X a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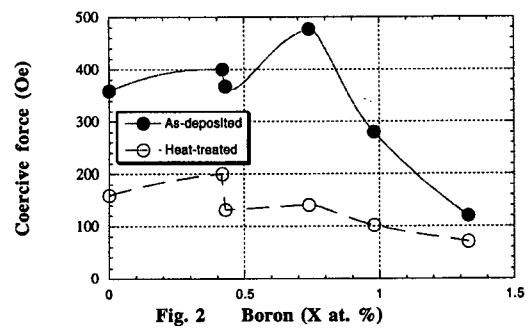


Fig. 2 Boron (X a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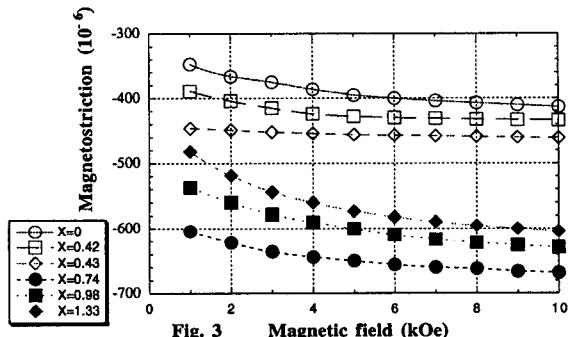


Fig. 3 Magnetic field (k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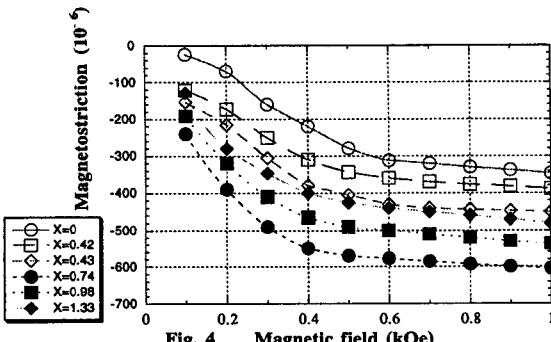


Fig. 4 Magnetic field (kOe)